

光日春秋



장석주
시인

나는 집필노동자다. 보통은 시인이냐 작가라고 불리지만 서른 두 해 동안 나를 버텨기도록 도와준 건 집필노동이다. 집필노동자의 수입원은 두 가지다. 매체에 기고하면 나오는 원고료와 출판사와 저작권계약을 맺고 낸 책에서 발생하는 인세 수입이다. 우리나라에 문학(시인, 소설가, 수필가) 종사자를 알려주는 국가통계 따위는 없다. 어림집작으로 30만명쯤 되리라 생각한다. 이들 중에 저작 활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작가는 턱턱하게 잡아도 300명을 넘지 않을 데다. 오직 0.001 퍼센트에 드는 사람만이 글을 써서 먹고 산다.

오직 집필 노동으로 생계를 꾸리는 작가는 천운 덕분이다. 작가들은 생계를 꾸리려고 교사, 대학교수, 언론 출판계, 의사, 건축가 같은 일을 하고 그 나머지는 비정규 노동자 처지와 다를 게 없는 학원강사, 판매직, 자영업, 공사장 잡부, 대리기사, 시간강사, 자서전 대필 같은 하드렛일을 한다. 글쓰기 외의 직종에서 일하는 작가들은 직장에서 퇴근하고, 혹은 주말에 몰아서 글을

다들 잘 알지만 쉬쉬 하는 작가들의 사정

쓴다. 드물게는 이중직투기나 장례지도사나 연예인 같은 직종의 일을 하면서 쓰는 이들도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는 될 데다.

얼마 전 한 후배가 대리기사를 한 경험을 장편소설로 써서 책을 냈다. 신문사 두 곳 신춘문에 공모에서 시와 소설이 잇달아 당선되며 유망한 신인작가로 주목을 받은 작가다. 그가 유력 출판사들에서 출판 제의를 받은 게 16년 전 일이다. 그 뒤로 시집과 소설책 몇 권을 냈으나 거의 팔리지 않았다. 그가 받은 인세는 용돈으로 쓰기에도 부족했을 데다. 그는 무명작가로 살지만 글쓰기를 포기하지 않았다. 나는 가끔 저러다가 굶어죽지 않을까하는 쓸데없는 걱정을 한다.

업계의 사정을 흘리자면 원고료는 40년 전과 똑같고, 작가들이 몇 해에 걸쳐 쓴 작품이 출판사와 저작권 계약을 맺더라도(그건 별을 따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 책이 중쇄를 찍는 경우는 훨씬 더 드물다. 나는 중층인 열 명 중 여섯이 일 년 내내 책 한 권 읽지 않는 책박한 나라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는다.

노벨문학상 수상작가가 나온 건 기적 그 이상의 일이다. 그보다 작가들이 굶어 죽지 않고 살아서 글을 쓰고 있다는 게 더 기적일지도 모른다. 여섯 해 전 한 시인이 굶어 죽은 일이 일어났다. 죽은 뒤 보름이 지나서야 비참한 상태로 발견되어 지인들을 충격에 빠뜨렸다. 그제외부로 알려진 건 그가 ‘여장남자 시코쿠’, ‘트랙과 들판의 별’, ‘육체소와 전집’ 같은 시집으로 주목을 받고

유명 문학상을 수상한 덕분이다.

이런 업계의 참담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신문사나 기간지의 신인작가 공모에는 수 백, 수 천의 작품들이 몰린다. 그 치열한 경쟁을 뚫고 당선하는 건 단 한 사람이다. 그들이 머잖아 처하는 사정은 앞서 밝힌 것과 어금비금하다. 이 업계가 처한 현실을 잘 알지만 다들 쉬쉬 하며 말을 꺼내지 않는다. 나라 경제 규모는 40년 전보다 훨씬 더 커졌지만 작가들은 최저 생계수준에서 허덕인다.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창작기금을 주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문학 우수도서를 뽑아 간접 지원을 하고는 있지만 그건 언 발에 오줌누기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

나는 출판 편집자 15년 경력을 뒤로 하고 불가피하게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섰다. 그 뒤 서른 두 해나 우직한 회사원처럼 글 쓰는 데 매달렸다.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술자리에서 흥청망청 한 기억도 없다. 한때는 방송 패널로 여기저기 불려 다니고, 대학에서 시간강사를 했지만 들인 시간과 노고에 견줘 수입은 보잘 것이 없었다. 집필노동으로 생계를 꾸린 일에 한 줌의 자부심이 없지 않은데, 물론 이젠 재능이나 성실함 때문이 아니라 행운 덕분이라는 걸 잘 안다.

어쨌든 빈사상태에 빠진 이 업계를 살리려면 정부가 지금처럼 뒷집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 한시도 머뭇거릴 여유가 없다. 작가의 생계나 복지 실태를 살펴보고, 40년 째 그대로운 원고료를 올리며, 작가에게 노후 연금을 지급하는 지원책 등을 내놓아야 한다.

종교칼럼



김원명
광주 원음방송 교무

시간이라는 존재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제 아무리 민첩한 사람이라도 붙잡을 수 없으며, 제아무리 힘센 장사라도 막아낼 수 없다. 그러기에 옛사람들은 하루 하루를 사랑하라고 했던 것이다. 원불교 4대 종법사셨던 좌산상사는 종법사 위에 계실 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가 되지 못하여 오는 불행들 때문에 커다란 고초를 겪고 있다.”고 지적하시고 우리들은 하나가 되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과거와 같이 어둡고 막힌 세상이 아니라 열리고 트인 방향에서 세계가 하나가 되어가는 지구촌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하게 된다. 그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

첫째, 본래의 자기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는 먼저 자기의 성품과 하나가 되어야 하며 자기의 본심(本心), 양심(良心), 본의(本意), 서원(誓願)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다. 자기의 본래 자리와 하나가 되

하나로 만들어가자

지 못한다면 그것은 주체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사람은 결국 타인이 휘두르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허수아비와 같은 꼴로 전락하고 말게 된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대하거나 한결같은 심법의 소유자, 일구어인(一구어인) 하지 않고 안과 밖이 하나인 진실한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모든 사람으로부터 환영과 보호를 받으며 존경을 받는 인물이 되는 것이다.

둘째, 가까운 인연부터 하나를 만들어 가야한다. ‘친친이위대(親親而爲大)’, 곧 “가까운 곳부터 친화하는 것이 큰 것이 된다.”는 법문이 있다. 이는 나의 행불행의 운명은 가까운 인연 속에서 이루어지는 법이라는 말이다. 먼 곳에 떨어져 있는 사람은 나의 행불행에 대하여 관여할 수도 배울 수도 빼앗을 수도 없다. 이웃사촌이라는 말은 먼 곳에 거주하는 부모 형제보다도 가까운 곳에 사는 이웃이 애경사에 있어서도 훨씬 빨리, 보다 친숙하게 챙길 수 있음을 말해준다.

셋째, 온 민족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 한반도는 크게 남과 북으로, 작게는 이념과 사상, 그리고 지역이라는 정서로 나뉘어 있다. 여와 야가 하나 되지 못하고 상대방을 혈투기에 혈안이 되어 있고 고용주와 피고용주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서로의 이익을 찾기에 분주한 실정이다. 과거에는 사회가 흐려질 때는 각자 각자가 한줄기의 생수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지금은 개개인이 생수 노릇을 하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곳곳에서 흘러나오는 오염된 것들이 쏟아져 나오지 않도록 관심을 두고 대처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뉘어 있는 두 개가 하나가 될 때 얼마나 강한 민족, 강성한 경제대국으로 성장하겠는가를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야겠다.

넷째, 온 인류를 하나로 만들어 가야한다. 지금 당장은 요원한 일로 여길 수 있겠지만 이 일은 결국 성자들의 원대한 경륜이요 서원이다. 소태산 대중사의 일원주의(一圓主義)와 정산종사의 삼동윤리(三同倫理)는 신앙과 종족과 이념의 벽을 넘어서 하나를 만들어가는 성업(聖業)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오늘날 지구촌이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세계는 하나라는 구호가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일찍이 대산종사는 ‘진리는 하나, 세계도 하나, 인류는 한 가족, 세상은 한 일터,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 개척하자 하나의 세계’라고 하셨다. 씨족의 울을 넘어서 우리 부모형제, 민족의 울을 넘어서 우리 부모형제, 종족의 울을 넘어서 우리 부모형제, 종교의 울을 넘어서 우리 부모형제로 하나로 살자고 말한 것이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타인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으로, 타인의 슬픔이 우리들의 슬픔으로 와 닿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조그마한 울타리를 벗어나 커다란 일원세계에서 서로서로 사랑하고 화합하는 멋진 삶을 구가하는 사람으로 성장해 나가자.

‘6·3 선거 공감’ 기고 <3>



박홍철
광주소비자연맹 부회장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결코 하루아침에 완성되지 않았다. 일제강점기의 억압과 해방 이후의 혼란, 군사 독재와 민주화 운동이라는 길고 험난한 여정을 거쳐 시민들은 스스로 지도자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쟁취하는데 힘겹게 성공했다. 그 과정에서 특히 광주와 전남 지역은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더 큰 희생과 헌신을 감내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비롯해 수많은 시민들의 용기와 결단은 우리나라가 국민주권 시대를 맞이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 속에서 광주·전남 지역은 지금도 민주시민의식이 가장 모범적으로 자리 잡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아픈 역사를 미래 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승화시키며 선거 참여와 공동체 연대의식 등에서 높은 시민 참여와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다.

최근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흐름 속에 있다. 짧은 시간 동안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위기, 사회적 양극화, 기후변화, 고령화, 청년층의 고용 불안 등 복합적 위기와 과제들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은 정부나 특정 집단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바로 시민 개개인과 지역 공동체의 자발적 참여와 협

선거, 권리를 지키는 성숙한 시민사회의 축제

력, 그리고 시민사회의 역할이 위기 대응과 사회 회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사실이다. 방역, 기부, 자원봉사, 지역경제 살리기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시민들은 스스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자 했다. 이처럼 공동체적 가치와 시민의 연대의식은 우리 사회의 위기를 버티는 원동력이 되었고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통령 선거는 이러한 시민의식과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권리를 행사할 소중한 기회다. 특히 이번 선거에서는 기존의 유세차와 군중 유세 중심의 방식에서 벗어나 SNS, 유튜브, 개인 방송 채널 등 디지털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두드러진다. 이제 유권자들은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과 PC로 후보자들의 메시지와 공약을 확인할 수 있고 댓글, 공유, 좋아요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선거운동에 참여하는 새로운 형태의 선거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이 변화는 선거 참여의 장벽을 낮추었고 다양한 세대와 계층이 정치적 토론과 의견 교환에 참여하는 계기가 되었다. 선거가 특정 집단의 특정적 행사가 아닌 국민 모두가 주체가 되어 참여하는 공동체적 축제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어 보인다.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가 창의적이고 참신한 방식으로 캠페인을 펼치고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도 하나의 축제처럼 즐기며 참여하는 새로운 흐름이 자리 잡았다.

그럼에도 선거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선거는 단순한 인기투표나 감정적 선택의 과정이 아니다. 선거는 내가 선택한 후보를 통해 내가 원하는 세상, 더 나은 대한민국의 미래가 투영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소중한 기회다. 유권자는 후보자의 인물, 정책, 사회에 대한

비전과 철학을 신중히 살펴봐야 한다.

특히 이 과정은 고통스럽고 피곤한 숙제가 아니라 시민으로서의 권리이자 의무, 그리고 함께사는 공동체를 직접 완성해가는 즐거운 여정이어야 한다. 자신의 선택이 공동체 전체의 삶과 미래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고 그 의미를 음미하며 참여하는 것이 진정한 민주 시민의 자세다. 선거는 치열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가치와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토론과 비판은 불가피하지만 이를 통해 공동체의 다양성과 공존의 가치가 실현된다. 선거 결과에 대한 승복과 상대방에 대한 존중은 성숙한 민주사회의 기본이며 공동체 구성원 모두는 이러한 문화 조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야만 한다.

당선자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도 동등하게 존중해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의 절제와 균형있는 사용으로 협치와 소통을 이끌어내고,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한 책임 있는 권력 행사를 해야 한다.

다가오는 6월 3일의 조기 대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성숙도를 확인하는 중요한 시험대다. 유권자 모두가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 자신이 바라는 세상에 대한 책임 있는 선택을 해야 한다. 나의 한 표로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민주주의라는 공동체적 가치를 실천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

선거는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다. 모두가 참여하고 모두가 존중받으며 모두가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다하는 민주주의 축제의 장으로 대한민국의 선거 문화가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 시민사회와 시민 모두의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그 시작을 만들어 낼 것이다.

社說

광주 찾는 이재명 5·18 헌법전문 수록 확약을

5·18 민주화운동 45주년을 맞았다. 올해 5·18은 여러모로 예년과는 다른 의미로 다가온다. 국민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겪으면서 45년 전 신군부의 비상계엄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킨 ‘광주정신’의 소중함을 어느 해보다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6·3 조기 대선을 앞두고 있는 점도 여는 해와 다른 점이다. 이번 대선은 내란 종식을 통해 민주주의를 더욱 굳건하게 세우는 것이 지상 과제다. 오는 18일 45주년 5·18 기념식장은 대선 후보들이 만나는 장이기도 하다. 관심은 단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쏠릴 것이다. 이 후보는 5·18 전야제와 기념식 일정에 맞춰 광주를 찾는다. 이 자리는 5·18의 숙원을 해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

5·18 관련 최대 숙원은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하는 것이다. 문재인과 윤석열 정부 모두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지켜지지 않고 있다.

정호용 영입 시도로 내란세력 자인한 김문수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정호용 전 국방부장관을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고 철회한 것은 그의 역사인식 수준을 여실히 보여준다. 김 후보는 그제 정 전 국방부장관을 상임고문으로 위촉했다가 비난이 일자 5시간만에 철회했다. 그러면서 위촉 배경을 묻는 질문에는 “그 부분은 저하고 미리 상의한 건 없었다”, “업무상 아마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지방 일정을 3일간 계속하는 바람에 자신은 잘 모르는 일이라고 발뺌을 한 것이다.

정호용이 누구인가. 그는 5·18 당시 공수부대를 지휘하는 특전사령관으로 광주 시민의 가슴에 총칼을 꽂은 학살 현장의 최고 책임자다. 전두환 신군부의 5인방이기도 하다. 신군부의 비상계엄에 반발하며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광주시민들을 학살했으면서도 지금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천수를 누리고 있는 자이다.

5·18 단체와 광주 정치권이 들고 일어

나 김문수를 규탄하고 나설 만도 하다. 유족회 등 5·18 관련 3단체는 성명을 통해 “희생자에 대한 모욕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며 “인선을 철회했지만 이는 진정한 사과와 반성에서 비롯된 결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선대위도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닌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세력의 재결집”이라며 김 후보의 즉각 사퇴를 요구했다.

정호용과 같은 내란범을 고문으로 위촉했다 철회한 것은 김 후보가 전두환과 윤석열을 잇는 내란의 후계자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조기 대선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인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치러지는 선거다. 내란을 자초한 공당의 후보가 45년 전 내란범을 선대위 상임고문으로 위촉한다는 발상 자체가 안하무인적인 역사인식을 드러내는 것이다. 김 후보는 지금 당장 광주 시민은 물론 국민 앞에 진심으로 사죄하길 바란다.

無等鼓

대부분의 도시는 스스로를 기억하기 위한 기념일(시민의 날)을 만든다. 그렇다고 모든 도시에 진정한 시민의 역사가 새겨진 ‘시민의 날’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시민’이라는 이름을 몸으로 증명한 도시만이 그날을 가질 자격이 있기 때문이다. 광주가 그렇다.

광주시민의 날은 5월 21일이다. 1966년 광주시는 처음으로 10월 15일을 ‘시민의 날’로 제정했다. 당시만 해도 광주시청이 주도해 이전 중심의 기념행사와 체육

대회, 시가행진 등을 성

대하게 열었고, 정작 주

인공인 시민은 둘러리

에 불과했다고 한다.

그리고 1980년 5월 21일, 광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의 ‘시민의 날’을 경험하게 된다. 전두환의 계엄군이 도심 외곽으로 물러난 그날, 시민이 진정한 주인이 돼 도시의 일상을 지켜낸 것이다. 지도자 없는 무정부 상태에서도 공동체는 무너지지 않았고 옛세간 광주는 그 자체로 하나의 자치도시였다. 이 경험은 이후 광주의 정체성이 됐다. ‘민주화’라는 말조차 꺼내기 힘든 시대였기에 진정한 ‘시민의 날’ 5월 21일은 오랜 세월 시민의 기억 속에서만

맴돌았다. 한차례 기회도 있었다. 하지만 광주시는 전두환 정권하인 1986년, 직할시 승격을 명분으로 ‘시민의 날’을 11월 1일로 변경했다.

1990년대에 들어 시민사회와 5·18 유족회, 언론, 학계, 문화예술계 등이 나섰고 광주시는 2010년 5월 21일을 ‘광주시민의 날’로 공식 지정했다. 30년 만의 바로잡기였다. 표면적으로는 낱자 하나를 바꾼 것이었지만 그 하루에 담긴 무게는 무겁고 단단했다.

올해 60번째 생일 ‘환갑’을 맞는 ‘광주시민의 날’은 그 어느 해보다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3 계엄 사태에 따른 조기 대선으로 시대와 조건이 다른 ‘계엄’의 역사가 겹치는 기념일이 됐기 때문이다. 광주시는 더 많은 시민이 함께할 수 있도록 ‘시민의 날’ 행사를 토요일인 5월 24일로 조정하고 대신 축제로 확장을 준비 중이다. 시청 앞 도로에는 100m짜리 워터슬라이드와 수영장을 설치하고 기념행사 무대도 위아래 구분 없는 열린 구조로 꾸밀 예정이라고 하니 주인공인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한다. /박진표 경제부장 lucky@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국장 崔權一		
제작국장 柳濟寬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영 지 원 국 220-0515		문 화 사 업 국 220-0541
집 부 220-0649	대 화 부 220-0624		(FAX 222-8005)		(FAX 222-0195)
치 부 220-0634	예 향 부 220-0692		기 획 관 리 국 227-9600		업 무 국 220-0551
제 부 220-0648	여 론 매 체 부 220-0661		(FAX 222-0195)		(FAX 222-0195)
회 부 220-0664	사 진 부 220-0693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80	디 지 털 부 220-0697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